통 큰 지원… 소상공인 '숨통'

익산시, 전담부서 '소상공인과' 출범… 현장밀착형 정책 적극 발굴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최대 규모의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운다.

특히 전담부서인 '소상공인과'를 신설해 맞춤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일상회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소상공인과가 출범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중되고 있는 경영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를 상향하는 등 금융 지원 규모를 늘린다.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별로 3천만원 이내인 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행에 앞서 시는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출연금 심의와 추경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영난이 가중돼 폐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이로움 정책수당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0년 2월 이후 실시된 코로나19로 방역 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이용 인원 제한) 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익산에서 재창업한 사업주 또는 재창업 예정자이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가격업소'도 추가로 발굴한다. 시는 '착한가격업소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현재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17곳으로 그동안 시는 전북도 조례에 근거해 착한가격업소에 일부 영업 물품을 지원하고 있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위생소독, 세제, 락스, 일회용 장갑, 쓰레기봉투(50L) 등 영업물품이 지원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민안전보험' 군산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2022년 재가입 추진… 사망 · 상해후유장애 시민들 보험 혜택

군산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2022년 군산시민 안전보험' 재가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가입하는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작년 2월에 가입한 보험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군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감염병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65세 이상)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익사사고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멧돼지, 뱀, 벌)로 총 14개 항목이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20일 이후 시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 예정이며, 사고 등으로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시 관계자는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항목별 보장되는 금액이 최대 1천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수혜가 가능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올해는 중앙 정부와 중복으로 보장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신규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감염병 사망 위로금 보장을 추가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생활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재택치료전담반 운영, 치료지원 총력

군산시는 최근 재택치료자(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와 지원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15일 기준 재택치료자(확진자)는 총 2,346명으로 이중 887명이 치료 중이고 1,459명이 격리해제됐다. 중증환자를 제외하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확진자의 대다수가 자가에서 재택치료를 진행 중이다.

보건소 재택치료전담반은 기초역학조사를 토대로 확진자와 1:1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재택치료의 절차와 치료과정을 안내하고 치료자와 동거중인 공동격리자에게 격리통지서를 전달하게 된다.

재택치료중인 60세이상 및 만12세미만 소아에게는 별도의 의약품이 포함된 건강관리키트(해열제,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소독제, 산소포화도측정기(또는 소아용감기약)가 별도 지급된다.

60세이상 및 먹는 치료제 투약대상자(50대이상 고위험 ·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중점관리 대상자들은 전담의료기관(군산의료원)을 통해 1일 1~2회 이상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와 의료 상담을 받게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는 올해 마을세무사로 지정된 14명의 세무사들에게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마을세무사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금 고민은 마을세무사에게

군산시, 마을세무사 현판 전달

군산시는 올해 마을세무사로 지정된 14명의 세무사들에게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마을세무사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판을 전달받은 마을세무사들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무 상담 및 소액 지방세 불복청구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하게 된다.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을 원하는 경우 읍면지역 주민은 시청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를 검색해 지역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상담을 신청하면 되고, 동지역 주민은 이들 세무사 중 주소지와 가까운 마을세무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현판을 전달받은 박중훈 세무사는 "비록 작은 재능이지만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세무 상담을 위해 마을세무사를 찾는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안현종 감사담당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기꺼이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할 세무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본 마을세무사 제도가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부동산 특별조사단' 가동 발대식 개최

익산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원천 차단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별조사단'을 가동한다.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16일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헌율 특별조사단장을 비롯해 익산경찰서, 익산세무서,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 한국부동산 중개업협회 익산지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특별조사단 운영과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부동산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정헌율 시장을 단장으로 경찰서와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 한국부동산 중개업협회 익산지회 등 유관기관과 집중 · 상시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한다.

시는 특별조사반과 주거안정반, 홍보반 등 3개 팀으로 구성해 특별조사 실시,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예방에 노력한다.

특히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행해지는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까지 뿌리 뽑는다.

특별조사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경찰서는 시장교란 행위자와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진행하며 세무서는 세금 탈루 의심자에 대한 조사와 추징에 나선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농업인대학 전문인력 양성 총력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변화하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전문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농업인대학과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농업인대학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내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약 8~9개월간 운영되는 중장기 교육이다. 올해로 15회째 접어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5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분야별 단기교육을 통해 재배기술 및 작목의 이해를 위한 폭넓은 교육을 진행했지만, 금년에는 농업인들의 사전교육수요조사 및 의견을 반영해 분과별로 깊이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농업인 양성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설분과로 유기농기능사과정 20명, 양봉관리사과정 20명 총 40명을 선정해 2개분과 총 100시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남현봉기자

군산 보건소, 새해다짐 워크온 첫 챌린지 시행

군산시 보건소는 오는 3월 25일까지 코로나19로 위축된 군산 시민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첫 챌린지로 '새해다짐 15만보 걷기 챌린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워크온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걸음 수를 측정하고 목표 걸음 수 달성에 따라 다양한 혜택과 선물을 제공해 일상 속 걷기 운동을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앱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비대면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챌린지 참가를 원하는 경우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앱 설치 후), ▲ 군산시 걷기 공식 커뮤니티 가입, ▲챌린지 화면에서 참여하기(응모하기)를 선택, 한 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걸으면 달성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3,099명이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했으며 10회 이상의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 바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